

‘트럼프 190조원 상호관세 토해낸다’ 베텁하는 美 기업

코스트코서 레이벤까지…눈치보던 기업들 ‘환급 앞줄서기’ 경쟁

관세환급 현실화 맨 혼란…걷은 관세, 이미 재무부 넘어가기 시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날 경우 미국 정부는 이미 거둬들인 약 190조원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코스트코에서 레이벤에 이르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폐소 가능성에 베팅해 관세를 납들보다 먼저 돌려받기 위한 차원에서 잇따라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수주 동안 코스트코, 레이븐, 범블비 푸즈, 레이벤 제조사 등이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부과·징수한 모든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대법원이 이르면 연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행정부의 폐소에 대비해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악시오스는 “그간 큰 기업들은 정부의 반감을 사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도해온 법적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이들 대기업의 움직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상호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자동차 등 상품에 별도로 부과·증인 품목 관

세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양대축 가운데 하나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방식은 과거 미국 정부가 사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IEPA를 근거로 삼아 한 나라의 광범위한 상품에 일률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방식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규정을 확대 해석해 관세 부과권을 가진 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사유로 상호관세 부과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州)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악시오스는 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할 경우 거액의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놓고 미국에서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 코스트코 등 대기업들의 잇따른 소송 제기가 관세 환급을 확실하게 빨리 받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겉힌 상호관세는 1천300억 달러(약 190조원)에 달한다. 약 30만1천개의 수입업체가 상호관세를 냈고, 관련 수입 신고 건수는 3천400만건에 달했다. /연합뉴스



모로코 주민들이 15일(현지시간) 수도 라바트에서 남쪽으로 약 300km(186마일) 떨어진 해안 도시 사피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홍수 이후 파괴된 차량과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현지 관리들은 사피 해안 마을의 갑작스러운 홍수와 진흙탕 급류로 인해 최소 37명이 사망했으며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모로코서 홍수로 최소 37명 사망…“기후변화 여파”

북아프리카 모로코 서부 해안 도시 사피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로 최소한 37명이 사망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피 지역은 전날 폭우가 내린 이후 곳곳이 흙탕물로 뒤덮였으며 도로가 파손되고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서 도로 진출입이 일부 차단됐다.

구도심에서는 최소 70개 가구와 사무실이 침수됐으며, 수십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일부 부상자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아지즈 아크하누크 모로코 총리는 “단기간에 37mm의 비가 내렸고 강이 가로지르는 사피의 밥차바 지역에서 많은 상인과 노동자들이 숨졌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당국은 수색과 구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모로코는 7년 연속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돌발적인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까지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북아프리카의 극심한 기상 변동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뜨거워진 대기가 더 많은 습기를 머금는 탓에 호우 피해를 키운다는 것이다.

모로코 기상 당국은 16일까지 비가 계속 내리고 모로코 서쪽 대서양 해안에서부터 튀니지로 이어지는 아틀라스산맥에서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연합뉴스

호주 총리 “시드니 총기 난사, IS 이념 따른 범행인 듯”

악명 높은 지하디스트 전도사 추종

15명의 희생자를 낸 호주 시드니 유대인 죽제 총기 난사 사건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의 이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앤서니 앤더슨 앤더슨이 호주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아들 나비드가 2019년 시드니에서 체포된 IS 관련 테러 계획과 연관성 때문에 호주 국내 정보기관 호주안보정보원(A SIO)의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이상 지속해온 이 이념이 증오를 조장했고 이번 사건에서는 대량 살인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저녁 호주 남동부 시드니의 유명 해변인 본다이 비치에서 열린 유대인 명절 하누카 축제 행사장에서 사지드 아크람(60)과 나비드 아크람(24) 부자가 총격을 가해 15명이 희생됐다.

앨버니지 총리는 아들 나비드가 2019년 시드니에서 체포된 IS 관련 테러 계획과 연관성 때문에 호주 국내 정보기관 호주안보정보원(A SIO)의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와 연루된 2명은 기소·수감됐지만, 그는 당시에 주요 용의자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치밀하게 계산됐고 냉혹했다”면서 지금까지 수사 결과로는 총격범 2명 외 추가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BC는 나비드가 시드니에서 악명이 높은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전도사인 하디드의 추종자였다고 대테러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시드니 교외에서 예배당을 운영하는 하다드는 유대인 살해에 관한 종교 경전을 인용하는 강연을 포함한 폭력적인 반유대주의 강연으로 잘 알려졌다.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멕시코 산 마테오 아텐코의 톨루카 공항 근처에서 소방관과 적십자 직원들이 소형 비행기 추락 현장을 처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피시키고 진화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도
밥상

을 지키는 사람들의
최자명 남정자 박기순 조장희

◀ 광주매일신문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푸른 자연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 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염전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